

최민식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굿 윌 헌팅’ 같은 영화”

학원을 넘어 세상을 이야기하는 드라마
박해준·조운서 출연...다음달 9일 개봉
박동훈 감독 “수학적·음악적 쾌감 느낄 것”



박해준(왼쪽부터), 최민식, 조운서, 김동휘, 박병은.

최민식이 주연한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촬영을 마친 지 2년 만에 관객을 만난다.

영화는 신분을 감추고 고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는 탈북한 천재 수학자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 만나며 벌어지는 일을 담은 드라마다.

학문의 자유를 갈망하며 탈북했지만, 수학이 입시 수단으로만 쓰이는 남한의 현실에 실망한 천재 수학자 이학성은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조르는 고등학생 한지우에게 올바른 풀이 과정을 찾아가는 법을 가르치며 뜻하지 않은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학성을 연기한 배우 최민식은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먼저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생각났다”며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많은 학원 드라마가 있지만, 학원에 국한되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드라마를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만나게 된 작품”이라고 말했다.

최민식은 이학성에 대해 “학문에 대한 애정이 지극하고 철학이 공고하지만,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억압 속에 학자로서 나래를 펼치지 못하고 탈출했는데 남한에서도 지향하는 학문을 펼칠 수 없는 환경에 봉착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련을 거듭하는 능력자의 모습을 많이 고민했는데 천재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안타까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며 “그 아픔을 표현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는 “딱딱한 수학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수학을 매개로 이어진 인연들의 따뜻한 이야기”라며 “힘들고 지친 시대를 살면서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박동훈 감독은 “관객으로서 ‘해피엔드’의 짧은 장면과 대사를 기억할 정도로 1990년대부터 배우 최민식의 ‘전편’이었고, 연출자로서 최민식이 경비복 입고 수학을 설파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흥분했다”고 했다.

박 감독은 “시나리오를 받고 예의 바른 이야기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한 아이가 있는데 어른이 아이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존중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어른도 자기의 의견을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반듯함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연출을 맡게 됐습니다.”

영화에는 이학성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한지우에게 원주를 파이(π)에 음을 붙여 만든 ‘파이송’으로 수학의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박 감독은 “수학이 딱딱하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다”며 “관객들이 수학적 쾌감과 음악적 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



최민식 주연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자문했고, 현장에도 수학 전문가가 상주했다”면서도 “수학에 대한 영화라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수포자’ 감독이 만들었으니 안심하고 오셔도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지우 역은 드라마 ‘비밀의 숲’ 2로 얼굴을 알린 신에 김동휘가 맡았다. 지우의 담임이자 수학 교사 김근호 역의 박병은, 이학성의 유일한 지원자인 새터민 지원본부 안기철 역의 박해준, 지우의 친구 보람 역의 조운서 등이 함께했다.

영화는 다음 달 9일 개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방송인 김성주 코로나 확진 판정 ‘복면가왕’ 등 7개 프로그램 차질

방송인 김성주(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김성주가 자가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됐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김성주는 경미한 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이며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방역 당국 지침에 따를 예정이다.

김성주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경미한 인후통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다.

김성주는 MBC ‘복면가왕’, TV조선 ‘국가수’, KBS ‘우리끼리 작전:타임·개승자’, JTBC ‘몽쳐야 찬다’와 이달 첫 방송 예정인 TV조선 ‘국가가 부른다’, 채널A ‘강철부대2’ 등 총 7개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다.

김성주가 확진됨에 따라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촬영 및 방송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 첫 방송을 앞둔 ‘강철부대2’ 측은 첫 방송 녹화는 마쳤지만, 다음 녹화 일정을 조정할지 논의하고 있다. ‘우리끼리 작전:타임’은 예정됐던 녹화 일정을 한주 미룰 예정이



적으로 녹화 일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일주일 뒤 녹화에 예정된 ‘복면가왕’은 김성주의 상태에 따라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녹화를 진행한 ‘개승자’ 측은 김성주와 밀접접촉한 제작진에게 검사를 권고했다. 다만 다음 녹화 일정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가 부른다’와 ‘국가수’ 역시 김성주 확진 소식에 따라 내부적으로 녹화 일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퍼주니어, 1년만에 컴백



그룹 슈퍼주니어(사진)가 1년 만에 스페셜 싱글을 발표하고 컴백한다고 소속사 레이블SJ가 최근 밝혔다.

이번 스페셜 싱글은 지난해 3월 발매한 정규 10집 ‘더 르네상스’ (The Renaissance) 이후 1년여 만에 선보이는 단체 곡으로, 올해 슈퍼주니어 활동의 시작이다.

슈퍼주니어는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멤버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고 싱글 발매 소식을 전했다. 다만, 컴백 일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소속사는 “최근 멤버들의 개인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스페셜 싱글 또한 슈퍼주니어만의 음악 세계를 담은 국내의 팬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슈퍼주니어는 2005년 11월 가요계에 데뷔한 뒤 ‘소리 소리’ (Sorry, Sorry), ‘미스터 심플’ ((Mr. Simple) 등 여러 히트곡을 내며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았다. /연합뉴스

김민재, 조선시대 의사 변신 tvN ‘...유세풍’서 주연 맡아

배우 김민재(사진)가 조선시대 정신과 의사로 변신한다.

소속사 남양엔터테인먼트는 김민재가 tvN 새 드라마 ‘조선정신과 의사 유세풍’에서 유세풍 역에 캐스팅됐다고 최근 밝혔다.

‘조선정신과 의사 유세풍’은 잘나가던 내의원 의관 유세풍이 궁중 음모에 휘말려 쫓겨나 이상하고 아름다운 계수마늘의 계지한(김상경 분)과 서은우(김향기)를 만나며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다.

김민재가 맡은 유세풍은 궁궐의 전설로 불릴 만큼 탁월한 침술을 지닌 수석침의로 출세 가도를 달리던 중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며 침 못 놓는 침의로 전락하는 인물이다.

‘조선정신과 의사 유세풍’은 올해 하반기 방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배우 김민재(사진)가 조선시대 정신과 의사로 변신한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